

2011. 10. 24.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KDI's 40th Anniversary
The Korean Economy in the Age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 기간: 2011년 10월 24(월) ~ 25(화)
- 장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B1)
- 주최: KDI(한국개발연구원)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세션 3. 1987년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 한국은 정치·경제 분야의 참여개방주의에 기반해 선진시장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으며,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또한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음.
- 한국의 정치와 경제 각각을 인덱스화하면 민주화 점수는 최고점 14점 중 13점을 기록한 반면, 경제 개방성 지수는 최고점 9점 중 7점을 기록했다.

- 정치적 시스템이 개방되고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경제 시스템의 개방은 민간 재벌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됨으로써 정치, 경제 간 개방성에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1997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간주됨.

□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제한적 시스템으로부터 개방적 시스템을 향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1970년대에 충족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환을 이룸.

- 세 가지 조건은 첫째, 국가의 엘리트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객관적인 정책입안을 통해 관료들을 통제했으며, 관료들은 법에 따라 기업과 은행을 운영함.
- 둘째,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영구적이어야 하는데,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통해 안정을 이루었고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점차 감소함으로써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게 됨.
- 셋째, 군대의 정치적 통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정치 시스템에서 군대를 배제해온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전두환 대통령 정권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전 대통령과 밀접했던 군 파벌과 거리를 두었음(한국의 정치에 군대가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군대의 정치적 통제는 90년대 이후 가능해졌다는 주장이 있음).

□ 한국은 정치, 경제적 개방을 추구하고 재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성공적인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음.

- 1980년대 중반의 정치적 위기를 계기로 민주화가 과열되었고 1987년 여당이 민주화를 선언하며 정치적 개방 시스템을 채택함.
- 그러나 정치, 경제 간 개방성의 격차로 재벌의 도덕적 해이가 생겨나고 경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1997년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를 계기로 다시 경제적 개방정책을 도입, 재균형을 달성함.

- 전환을 위한 조건충족은 박정희 대통령 정권부터 기반이 마련되었음.
 -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져 민주화에 대한 압력이 확대됨.
 - 80년대, 정부는 민주화에 대한 압력을 무력으로 탄압했으나, 중산층, 노동조합, 학생운동 등이 강화되면서 결국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도 가속화 됨.
 - 1980년대는 70년대에 비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들어 안보를 명분으로 민주화를 탄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민주화 이후 정부 정책이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시작했으며, 사회 보장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방에 대한 지출이 감소했고, 이후 시민사회가 출현하였음.
 - 80년대부터 시작되어 90년대에 급격히 이루어진 NGO 등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1990년대부터 시민사회가 재벌의 기업운영 및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하기 시작함.
- 정치적으로는 개방을 이룬 민주화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개방을 달성하지 못해 재벌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재벌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당시 초기 성장단계에 있던 시민사회도 재벌을 견제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해 재벌의 영향력이 확대된 측면이 있음.
 - 정치가들이 재벌이 주는 정치자금에 의존하면서 점차적으로 재벌의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재벌의 구조조정과 거버넌스 개혁에 실패했으며, 이러한 '대마불패'는 이후 1997년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원인이 됨.
 -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광범위한 기업, 구조개혁을 이루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가 안정을 되찾아 다시 성장세를 보임.
- 정치, 경제 개방의 격차로 인해 맞이한 위기를 시스템의 개방적 개혁을 통해 극복한 한국의 경험은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제공

<토론: 호세 에드가르도 캄포스 세계은행 국제거버넌스 실장>

- 보통 개도국 정부에 사회적 재균형을 이루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때 개도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개도국 정부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두 종류의 도전 중 첫째, 기술적 문제는 선진국으로부터 지식을 제공받으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둘째, 정치적 이슈와 연관된 문제들은 정답이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개도국 발전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개발이 정체단계에 접어들게 됨.
 - 이의 해결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 내 이해 관계자들 간 연합은 이해 관계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합 구축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
- 한국은 이해당사자, 특히 엘리트들을 통제하기 위해 지대배분 방식을 사용했는데, 수출지향적 정책은 산업정책으로도 설명될 수 있지만 비즈니스 엘리트를 통제하기 위한 지대배분의 한 수단으로도 설명될 수 있음.
 - 수출지향적 산업정책 아래 비즈니스 엘리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케 함으로써 공동성장을 모색하도록 유도함.
 -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산업정책을 통해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를 통합하고 서로 간의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한국의 도어스텝 조건 충족 경험) 한국은 실적위주의 관료제를 설립하여 엘리트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했는데, 1960년대 이후 중산층의 부상에 따라 정치개방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으며 제조업, 산업능력의 향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이룸.
 - 또한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 안보에 대한 우려도 감소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국은 전환을 위한 모든 도어스텝 조건을 만족하고 사회적 전환을 이룰 수 있었음.

□ 한국의 경험에 대한 추가적 연구 결과를 세계와 공유해야 할 것임.

- 많은 개도국, 아프리카 국가들 및 중진국들이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지식공유를 추구하는데 정책적 지식공유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개도국의 능력개발에 주목하여 개도국으로 하여금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의 전환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함.